

1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인 주식회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주식회사의 조직 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, 상법에서 요구하는 보통결의를 통하여 가능하다.
- ② 보험회사인 주식회사가 자본감소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③ 주식회사가 조직 변경을 결의한 경우 그 결의를 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결의의 요지와 재무상태표를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적힌 질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.
- ④ 주식회사는 조직 변경을 결의할 때 보험계약자 총회를 갈음하는 기관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, 이 기관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2. 보험업법상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일정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데,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?

- 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
- ②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
- ③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
- ④ 주주총회결의 방법의 변경

3. 보험업법상 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한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금품의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특별이익의 제공금지로부터 제외된다.
- ②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은 금지된다.
- ③ 보험계약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과 보험계약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은 금지된다.
- ④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약속은 금지되지만, 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은 허용된다.

4. 보험업법상 보험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손해보험업 중 화재보험만을 취급하려는 보험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종목별 자본금의 최저 액수는 100억원이다.
- ② 보험회사는 생명보험의 재보험 및 제3보험의 재보험을 겸영(兼營)할 수 없다.
- ③ 보험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보험종목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④ 화재보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(소액 단기전문보험회사는 제외)는 해당 보험종목의 재보험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5. 보험업법상 보험중개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중개사는 개인인 보험중개사와 법인인 보험중개사로 구분하고, 각각 생명보험중개사·손해보험중개사 및 제3보험중개사로 구분한다.
- ② 법인보험중개사는 「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대부업 업무는 할 수 없으나 대부중개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할 수 있다.
- ③ 보험중개사에 소속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는 보험안내자료 등 보험계약의 중개를 위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료에서 보험중개사의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상호 중에 “보험중개사”라는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.
- ④ 보험중개사의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보험계약자 등은 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한도에서 영업보증금예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.

6. 보험업법상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,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한다.
- ② 일반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가 아닌 한,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 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해당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 없이도 보험계약 체결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.
- ④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가 청약의 내용을 확인·정정 요청하거나 청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, 보험회사는 그 자가 통신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7. 보험업법상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사무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② 국내사무소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 그 명칭 중에 사무소라는 글자를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하다.
- ③ 국내사무소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.
- ④ 금융위원회는 국내사무소가 보험업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때에는,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지만 국내사무소의 폐쇄를 명할 수는 없다.

8. 보험업법상 보험회사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?

- ① 본점의 영업을 중지하거나 재개한 경우
- ② 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
- ③ 보험회사의 업무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
- ④ 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총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만큼 변동된 경우

9. 보험업법상 보험계약의 이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이전한 경우는 물론이고 이전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7일 이내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② 보험계약이 이전된 경우 이전을 받은 보험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그 보험계약자는 그 상호회사에 입사한다.
- ③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의 이전으로 해산하면 금융위원회는 7일 이내에 그 보험회사의 본점과 지점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.
- ④ 보험회사는 해산한 후에도 3개월 이내에는 보험계약 이전을 결의할 수 있다.

10. 보험업법상 보험요율 산출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험회사는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보험요율 산출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.
- ②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회사가 적용할 수 있는 순보험요율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- ③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그 업무와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.
- ④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순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는 공표할 수 없다.

11. 보험의 종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손해보험의 보장대상은 재산상의 손해를 그 대상으로 한다.
- ② 생명보험의 보장대상은 사람의 사망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, 생존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.
- ③ 상해보험은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측면에서 손해보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.
- ④ 생명보험은 정해진 급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정액보험에 해당한다.

12. 보험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.
- ②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가 될 수 있다.
- ③ 법인은 인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될 수 있다.
- ④ 법인은 손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다.

13.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판례에 의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한다.
- ② 인보험계약의 경우,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- ③ 손해보험계약의 경우,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에 그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.
- ④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, 보험료 납입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.

14. 상법상 '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가 가지는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?

- 가.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
(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)
- 나.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
- 다.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, 고지, 통지, 해지,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
- 라.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, 변경,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

- ① 가, 나 ② 가, 다
③ 가, 나, 다 ④ 가, 나, 다, 라

15.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의 처리방법으로서 옳지 않은 것은?
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 보험자는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③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부존재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계약자측에 있다.
④ 보험자가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하여는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.

16. 보험금부정취득을 목적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보험계약일지라도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인 경우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로 될 수 있다.
② 보험금부정취득 목적의 계약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제반 사정에 의하여 그 부정목적의 추인할 수 있다.
③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의 해지나 취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, 보험자는 보험계약의 무효만을 주장할 수 있다.
④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.

17.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계약자는 계약체결후 지체없이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②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보험료의 전부 또는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성립후 2월이 경과하면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.
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,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하면, 그 타인에게는 별도의 최고하지 않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18. 보험료와 보험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료의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.
② 보험금의 지급은 현물로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료의 지급도 현물로 가능하다.
③ 보험료의 지급방식은 전부납입외에, 합의에 따라 다양한 분할납입이 가능하다.
④ 손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이익을 받는 자이므로, 보험금 지급 시 책임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.

19. 보험자의 면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라면,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.
②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라면, 보험자는 당사자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게 된다.
③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,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.
④ 질병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,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.

20.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의 목적의 성질,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.
- ② 해상보험자는 도선료, 입항료, 등대료, 검역료, 기타 선박 또는 적하에 관한 항해 중의 통상비용을 보상할 책임이 없다.
- ③ 인보험계약에서 둘 이상의 보험수익자 중 일부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보험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면한다.
- ④ 인보험계약에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
21. ()에 들어갈 용어 중 옳은 것은?

보험금청구권은 ()간,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()간, 보험료청구권은 ()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.

- ① 2년, 2년, 3년 ② 3년, 3년, 2년
- ③ 3년, 2년, 2년 ④ 3년, 3년, 3년

22.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보험사고의 성질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.
- ②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한다.
- ③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
- ④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.

23.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통설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은 생명보험계약에도 인정되는 개념이다.
- ②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보험의 목적과 구별된다.
- ③ 화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리 정하여진다.
- ④ 특정물건에 대하여 소유권자와 저장권자는 피보험이익이 다르므로 독립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인정된다.

24.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대법원은 중복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자들 사이의 책임 분담방식에 관한 상법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관을 둘 수 없다고 본다.
- ②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중복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.
- ③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
- ④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,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,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,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,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.

25.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②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약정에 의하여 정한 보험자 급여의무의 최고한도액을 보험가액이라고 한다.
- ③ 운송물의 보험에 있어서는 발송한 때와 곳의 가액과 도착지까지의 운임 기타의 비용을 보험가액으로 한다.
- ④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간주한다.

26.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)

- ① 제3자는 피보험자에 대한 항변으로 보험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.
- ②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절차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- ③ 보험자가 보험금의 지급 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보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라고 할 수 없으므로, 그 비용을 지출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그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.
- ④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,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.

27. 손해방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면 지급할 손해보상액과 손해방지비용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그 초과된 비용도 부담한다.
- ② 상법은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.
- ③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의 보험계약자는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- ④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책임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보험자가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지급하였다면 보험자는 이러한 비용도 부담하여야 한다.

28. 상법상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으로 입힌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③ 보험사고의 발생에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피보험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없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.
- ④ 보증보험계약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보증채무에 관한 「민법」의 규정이 준용된다.

29. 책임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.
- ② 피보험자가 제3자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출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필요비용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.
- ③ 피보험자가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으로써 재판의 집행을 면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그 담보의 제공 또는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임차인 기타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지급할 손해배상을 위하여 그 물건을 보험에 붙인 경우라도 그 물건의 소유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30. 인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대법원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?

- ①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인 사정만으로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.
- ② 타인의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는 계약체결시까지 이루어져야 하고, 보험계약성립 후의 서면추인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③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,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재산이다.
- ④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은 무효이다.

31. 다음 중 근원적 위험(fundamental risk)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?

- ① 채무 분야의 비체계적위험과 개념이 유사하다.
- ② 다수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대수의 법칙 활용이 용이하다.
- ③ 위험의 집단화를 통한 분산효과를 얻기 힘들다.
- ④ 민영보험사가 부보하기에 적합한 위험이라 할 수 있다.

32. 다음 중 가능최대손실(probable maximum loss)과 최대가능손실(maximum possible loss)에 관한 설명으로 옳바른 것은?

- ① 최대가능손실은 현실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최대 규모의 손실을 가리킨다.
- ② 가능최대손실은 확률분포의 표준편차가 클수록 커진다.
- ③ 가능최대손실은 경우에 따라 최대가능손실보다 커질 수 있다.
- ④ 최대가능손실은 위험관리자의 위험회피도에 영향을 받는다.

33. 다음 중 경제적 손인(economic peril)에 속하는 것은?

- ① 지진 ② 인종차별 ③ 태업 ④ 소비자기호 변화

34. 다음 중 리스크의 보유와 전가가 동시에 행해지는 리스크 재무기법에 해당하는 것은?

- ① 보험공제 설정 ② 캡티브 보험
- ③ 헤징 ④ 면책계약

35. 다음 중 위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- ① 결빙된 도로 ② 지반의 함몰
- ③ 건물의 위치 ④ 부실한 식습관

36. 다음 중 상속 재산이 부동산 10억 원, 예금 4억 원, 보험금 10억 원, 금융대출 2억 원이라 할 때 상속인에 대한 금융 재산 상속 공제액은 얼마인가?

- ① 10억 원 ② 8억 원 ③ 4억 원 ④ 2억 원

37. 다음 중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보험금 수익자가 장애인인 경우 연간 4천만 원 한도로 증여세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된다.
 ②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도 보험금 수익자로 지정되면 증여세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.
 ③ 장애인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상품에 가입해야만 한다.
 ④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업자에게 전부 신탁한 후 사망 시까지 신탁의 이익을 전부 수령하는 경우에는 5억원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.

38. 다음 중 예금자보호 금융상품에 해당되는 것은?

- ① 변액보험계약 특약
 ② 보증보험계약
 ③ 재보험계약
 ④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

39. 다음 중 투자 리스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체계적 리스크(systematic risk)는 분산투자를 하더라도 그 크기를 줄일 수 없는 리스크이다.
 ② 투자 레버리지(총 투자액/자기자본)가 커질수록 투자 수익률이 높아져 투자 리스크가 줄어든다.
 ③ 투자 기대수익률은 무위험수익률에 리스크 프리미엄을 합한 값이다.
 ④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자산들의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투자 리스크는 작아진다.

40. 다음 중 저축성보험에 매월 50만 원씩 10년 간 적립하여 120개월 동안 납입 후 1억 원을 보험금으로 받았을 때 과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- ① 이자에 대해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.
 ② 배당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과세된다.
 ③ 금융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세가 과세된다.
 ④ 비과세된다.